

지역 매 아 리

추경예산 9396억원 편성

김제시보건소, 임산부 대상
해피맘 출산준비교실 운영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에서는 제 3기 해피 맘 출산준비교실을 3일부터 26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5회기를 운영한다.

해피 맘 출산준비교실은 보건소 1층 편백나무방 모자보건실에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오후 1시30분부터 4시까지 운영된다.

임신·출산에 대한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이 많은 외래간사를 초빙하여 임신과 출산 과정의 이해 및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 하여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 할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교육 내용은 신생아관리 및 신생아 목욕, 모유수유 자세 및 실습, 임산부 생활운동 및 육아용품만들기,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돌보기, 산후 우울증 예방 등으로 모성 및 태아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형희 김제시보건소장은 '해피 맘 출산준비교실' 등 다양한 모자 보건사업 추진을 통하여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교월동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발대식 개최

김제시 교월동(동장 정우근)은 2일 교월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2019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40명을 대상으로 발대식 개최 및 활동 교육을 실시했다.

교월동은 어르신들의 다양한 일자리 욕구를 반영하여 하반기에 노인사회활동지원 참여자 10명을 신규증원하여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1부 발대식에 이어 2부는 일자리 참여시 유의사항과 가장 기본적인 안전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정우근 교월동장은 "연세와 무관하게 용기 있는 도전은 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최상의 노인복지라고 생각한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월동 노인일자리사업은 3개 조로 편성, 1일 3시간 월 30시간 운영하며 관내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주민 건의사항 주요 현안사업, 경로당 방문 및 직소민원 등 반영

김제시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974억원이 증가한 9396억원을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다.

김제시는 소통행정을 위한 '경로당 현장방문', 시민과의 행복한 동행 '직소민원의 날' 건의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였고, 노인 및 청년 일자리사업 지원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미세먼지 저감 정부추경관련 주요사업을 편성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에 경상경

비 등 여비 4천만원을 절감하고 보리 생산량 증가로 가격하락 된 관내 보리재배 농가 지원 및 대·내외적으로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홍보용 보리 제작에 편성했으며, 주민들의 생활민원인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농로·배수개선사업에 80여억원,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전담이사비·결혼 축하금·청년주택수당·국적취득자 정착지원금 등에 7억6천만원,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시정홍보에 1억원, 지정선착제기간(9. 27~10. 6)

시내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체육 행사사업 지원에 9500만원 등을 편성하였다.

또한,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6억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33억, 금산면 종합체육관 신축 10억원을 편성했으며, 시민의 간절한 바람과 힘으로 이루어낸 KTX 김제역 정차사업에 1800만원을 반영했다. 이외에도 주요 시책사업이 반영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23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9월 6일 최종 확정되면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속원사업 추진 등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김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은 최근 아동·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검토해 참여예산으로 반영하기 위해 아동·청소년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완주군, 내년도 아동·청소년예산 확정

중·고등학교 주변 스쿨존 확대 청소년이 운영하는 카페 등 7건

아동·청소년들이 제안하는 정책들을 실제 예산으로 편성,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완주군이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들을 선정했다.

2일 완주군은 최근 아동·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검토해 참여예산으로 반영하기 위해 아동·청소년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들은 2억원의 총 7건으로, ▲중고등학교 주변 스쿨존 확대 설치 ▲청소년이 운영하는 카페 ▲여자화장실 생리대 무료비치함 설치 ▲관내C 주변 아동친화도시 완주군 브랜드 홍보 입간판 설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청소년 전용 노래방, 만화방 설치 ▲아동청소년 눈높이

에 맞는 성교육(축제시 부스운영) 등이 있다.

앞서 완주군은 아동·청소년들이 원활하게 정책을 개진할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의회(어린이 의원 18, 청소년의원 20), 문화의집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 결과 총 12건의 정책이 접수됐으며, 해당 부서 검토와 아동청소년 분과위원회를 통해 7건의 정책을 확정하게 됐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군의 5대 핵심과제인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전국 군 단위 최초로 미래세대 주민참여예산사업을 3년째 계속 실시해 오고 있다"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아동들이 살기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완주군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의회, 23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개시

김제시의회는 2일 김복남 의원을 제 23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고미정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본격 예결특위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예결특위 위원은 총7명으로 김복남, 고미정, 김영자(마선거구), 유진우, 서백현, 정형철, 오상민 의원으로 구성했으며, 오는 4일까지 3일간 제1회 추경예산 8422억원보다 974억원이 증가한 9396억원의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다. 제2회 추경예산은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등 시의 재정 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는 관내 노인시설 및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12개소를 방문해 격려와 함께 위문품을 전달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

김제시, 추석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2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소외 계층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시에서 마련한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김제시는 예년에 비해 빠른 추석 명절을 맞아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기 위해 관내 노인시설 및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12개소를 방문하게 되었다.

이날 위문에서 박준배 김제시장은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시설 종사자와 생활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풍요롭고 여유있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격려와 함

께 위문품을 각 시설에 전달하며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였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시설관계자들에게 “오늘 전달한 물품이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소통으로 지역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는 추석명절 맞이 공무원 1인1가정 결연사업, 그룹홈 방문 등 소외된 이웃을 찾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추석 명절 이웃사랑 나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도시공원 조성사업 주민참여 탄력

완주군-진주소씨 월주중종, 봉동읍 토지 무상사용 협약

완주군의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주민들의 참여 속에 탄력을 받고 있다. 2일 완주군은 진주소씨 월주중종과 주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했다.

대상 토지는 진주소씨 월주중종 소유의 봉동읍 둔산리 소재 2만9617㎡로 내년 3월에 신설되는 청원초등학교 인근이다.

완주군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공원 부지와 중종토지까지 합하면 신규 조성되는 도시공원은 5만3863㎡에 달한다. 축구장 면적의 7배가 넘는 크기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향후 완주군은 무상사용을 약속받은 토지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편의시설이 들어선 주민참여

형 공원으로 2020년 초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소기태 진주소씨 월주중종 대표는 “주민들을 위해 토지가 사용된다니 오히려 기쁘다”며 “완주군에서 잘 관리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진주소씨 월주중종이 행정을 믿고, 주민을 위해 무상사용이라는 결정을 내려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곳을 주민참여형 도시공원으로 잘 가꿔나가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진주소씨 월주중종은 지난해에도 과학산단 내 토지 일부(1만703㎡)를 주민편익시설을 위해 무상 대여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

/완주=이종복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구독·광고문의
288-9700